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이주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일시 : 2016. 11. 30(수). 14:30-18:00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목 차

I. 프로그램	1
II. 강사소개	2
III. 발표자료	3
—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IV.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소개	5

I . 행사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14:30-14:35	- 인사말: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	사회: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4:35-14:40	- 기념촬영	
14:40-16:40	- 강연: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6:40-16:50	- 휴식	
16:50-17:50	- 참석자 토론 및 질의 응답	
17:50-18:00	- 폐회선언	

II . 강사 소개

■ 이주호 실장 프로필

□ 직 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실장

□ 학 력

- ❖ 부산대학교 산업공학(석사)
- ❖ 부산대학교 산업공학(박사과정 수료)

□ 경 력

- ❖ 2002.3~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2005.3~2008.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해연구센터(중국 상하이)

□ 연구실적

- ❖ 컨테이너 하역요금 체제개편, 보령신항 다기능복합항만 개발(2014)
- ❖ 동북아 국제물류협력 사업(2013)
- ❖ 광양만권 중장기 항만개발계획 수립(2012)
- ❖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유치 전략(2010)
- ❖ 대중국 종합연구(2009)

III. 발표 자료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이주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2016. 11. 30

이주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nts

- 중국 경제 여건
- 중국 주요 산업의 전망
-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1. 연구개요

연구문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및 정책적 변화가 한국 항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의 필요성

환황해권 : 대중국 수입화물에 의존하는 항만 → 중국의 경제 및 무역/물류 정책변화에 민감함 → 향후 중국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의 배경

세계 경제의 침체 + 교역량 탄성지 감소 => 항만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국 경제성장의 변화 :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해왔던 고속성장 => 최근 중속 성장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 : 양적 위주의 투자 및 수출 중심 => 내수 중심 정책

1. 중국의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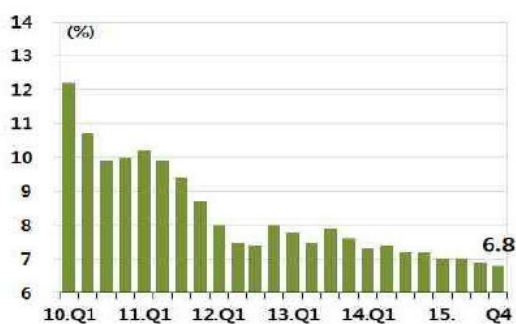
● 중국의 경기둔화 지속

중국의 GDP성장률은 2008년 9.6%에서 2015년 6.9% 수준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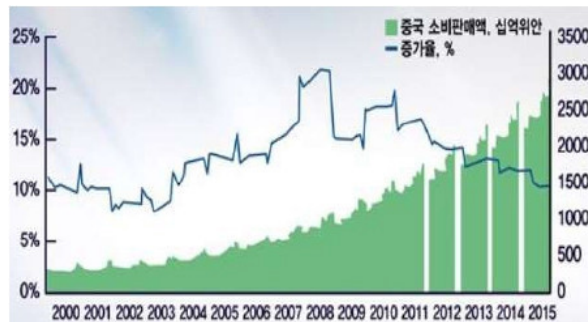
- 중국인민은행(PBOC)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6.6% 성장률을 전망

투자·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 → 소비·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로 이행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중국 소비시장 성장률>



1. 중국의 경제여건

● 내수회복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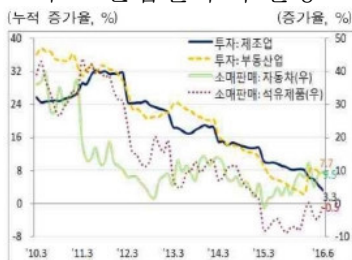
중국의 민간투자 부문 급격히 위축 + 소비는 10%대 성장

- 산업별로는 부동산 부문 투자와 자동차 부문 판매가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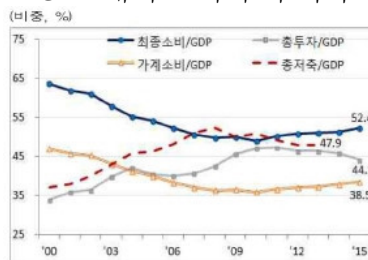
경제 구조상 저축 쏠림 현상으로 지연되었던 소비는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GDP 중 최종소비는 증가하나, 과다 저축 양상 지속으로 가계소비 확대가 정체
- 향후 세계개혁, 투자확대, 서비스업 확대 등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가 점차 가계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GDP 대비 소비·투자·저축 현황>



<2016년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

구분	정책내용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개증(營改增) 시행(5.1부터) -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 정부자금 통폐합,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 교통, 전력·에너지, 환경 등 7대 주요 업종 400개 프로젝트에 10조 원 투입 • 인민보통통화 시범(PPP) 적극추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육성 가속 - GDP 대비 3차산업 비중 50.5%(15년) • 도시화: 농민공 도시 편입 조건 완화

1. 중국의 경제여건

● 외수 위축 지속

대외 경기 악화 지속 등으로 수출 경기가 둔화, 주요국의 對 중국 수입증가율도 하락

- 수출은 2016년 6월까지 -7.7%, 수입은 -10.2%로 2015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기업 형태별로는 국유보다는 외투, 사영기업 등 민간 형태 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비율 차지

중국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현황>



<기업 형태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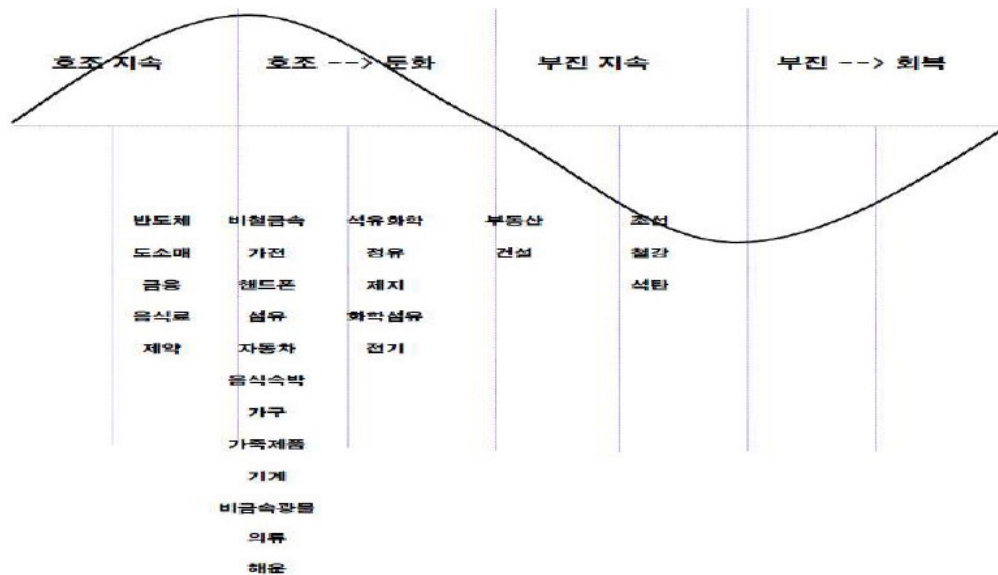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국유기업	48.8	23.3	15.3	10.7
외투기업	50.1	61.2	56.4	44.2
사영기업	-	-	-	42.8

<2016년 중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

구분	수출지원 정책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무역 촉진 - 상하이, 광둥, 톈진, 하이난 등 13개성에 서비스무역특화단지 조성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기업 지원 - 은행대출 확대 -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 중·서부 지역 가공무역확대 지원 - 자동차, 기계, 고숙업자, 항공, 선박 등 수출품 신용보증, 융자지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출 지원 확대 - 화 홍콩 및 마카오 서비스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 신규법인 행정절차 간소화

2. 주요 산업/업종 전망

● 주요 산업의 경기사이클(2015)



2. 주요 산업/업종 전망

● 호조/부진 산업의 평가 및 전망

구분	업종	평가및전망
호조	반도체	-중국정부의지원하에,막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반도체시장에본격적인진출전망
	도소매	-제조업의성장동력은약화되고있지만,3차산업은양호한경제성장을하고있음 -도소매업이금융업과함께3차산업의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금융	-1,2차산업의경제성장률은둔화되고있지만,금융업은10%내외의고성장지속 -금융시장의개혁및개방전략이가속화되면서향후중국금융시장의빠른성장예상
	음식료	-소득증가,노령화등으로건강식품및다양한신제품에대한선호증가
	제약	-인구고령화와중산층의선장으로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구조적인성장예상
부진	철강	-수요둔화심화로철강시장의공급과잉은지금보다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
	조선	-정부지원책으로명맥을유지하고있는중소형조선사들의난립으로저수익구조지속
	건설	-2011년주택거래제한규제로인해급속도로위축되었음 -규제완화,일대일로등으로장기적으로는회복가능성이있음
부진	석탄	-환경보호압력으로인한수요감소로산업의열세가지속될전망

2. 호조→둔화 산업별 전망

●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산업의 수익성 훼손

- 전세계적 경제 불황 →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 → 제품단가 인하 → 마진을 저하
- 수요산업(건설, 가전 등)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가시적인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

● 정유

정제능력이 석유소비를 넘어서면서 공급과잉 지속

- 국제 유가 급락 → 정제마진 악화 → 정유기업의 이익 총액 감소(2014년 대비 70%)

● 비철금속

수요둔화와 과잉생산 → 재고증가 → 가격약세로 수익성 악화

- 비철금속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의 급격한 하락(2013, 20% → 2014, 4.1% → 2015, 0%)
- 국가적 프로젝트(중국 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당분간 체력 저하 국면이 지속될 전망

2. 호조→둔화 산업별 전망

● 자동차

중국의 경기 둔화와 자동차구매제한정책 확대 실시 등으로 수요 부진 지속

- 과거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경제발전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정부의 자동차 구매지원 정책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 유지
-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수요 감소
- 환경보호와 교통 체증 완화 차원에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요부진 발생

● 가전/핸드폰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대중국 수입 축소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수요가 풍부
핸드폰 보급률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대비 생산량이 6.8% 증가 → 핸드폰 사용자 5억 명에 육박
- 보급률이 90%를 넘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3. 중국 경제의 과급효과

● 중국 경제불안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시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급락 우려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실제 총수요는 잠재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과잉투자의 부작용 심화



3. 중국 경제의 과급효과

● 중국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KDI)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 대중국 수출 둔화 →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 악화 →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 아시아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 약화 →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1%p)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0.2~0.6%p)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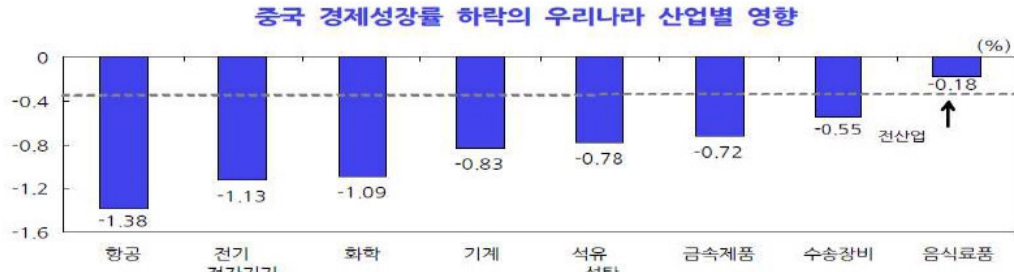
시나리오(각 지역 경제성장률 하락폭)	GDP	민간소비	총투자	CPI	경상수지 (GDP 대비)
중국 1.0%p 및 중국 외 0.0%p	-0.21	-0.06	-0.12	-0.02	-0.16
중국 1.0%p 및 중국 외 0.2%p	-0.37	-0.11	-0.21	-0.04	-0.29
중국 1.0%p 및 중국 외 0.5%p	-0.62	-0.18	-0.35	-0.07	-0.49

3. 중국 경제의 파급효과

● 중국 경제와 주요 산업별 파급효과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 등의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침

음식료품 등 소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가정 : 중국 1%p 및 중국 외 0.2%p 하락

향후 중국의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물동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석유, 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산업에 구조조정이 집중될 경우 우리나라에 경제 및 항만 물동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사료됨

4. 중국 산업구조 변화

●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12.5기간 동안 중국은 국내외 시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핵심 경쟁력과 제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 구조조정 실시

- 2013년 1월 중국 정부는 공업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를 통해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 발표
-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임
-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우리나라 기업과의 연관성이 높음

일부 산업의 경우 공급과잉 심화로 자발적인 구조조정 진행

- 석유화학, 섬유 등의 산업은 무리한 생산능력 확대와 수요 부진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퇴출 또는 업체 간 통폐합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

4. 중국 산업구조 변화

● 소비 확대 및 투자 축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 1인당 소득증가 → 소비시장 확대(연평균 9.2% 증가)

소비지출 중 식비와 같은 지출은 감소, 반면 통신, 교육, 레저용품과 같은 선택적 소비재 지출 비중 증가

World Bank : 중국 GDP 대비 소비비중은 2020년까지 60% 증가, 반면 투자 비중은 38% 하락 예상

●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중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5년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 발표

- 10대 핵심산업 :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산업,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소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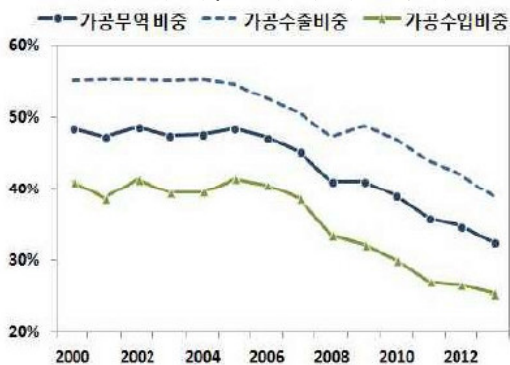
4. 중국 산업구조 변화

● 가공무역 축소 및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산업구조의 고도화 → 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가공무역의 비중 감소

- 2012년 기준 총 교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감소
- 가공단계별 재화의 수입 비중 : 중간재 → 급격히 감소 / 소비재 →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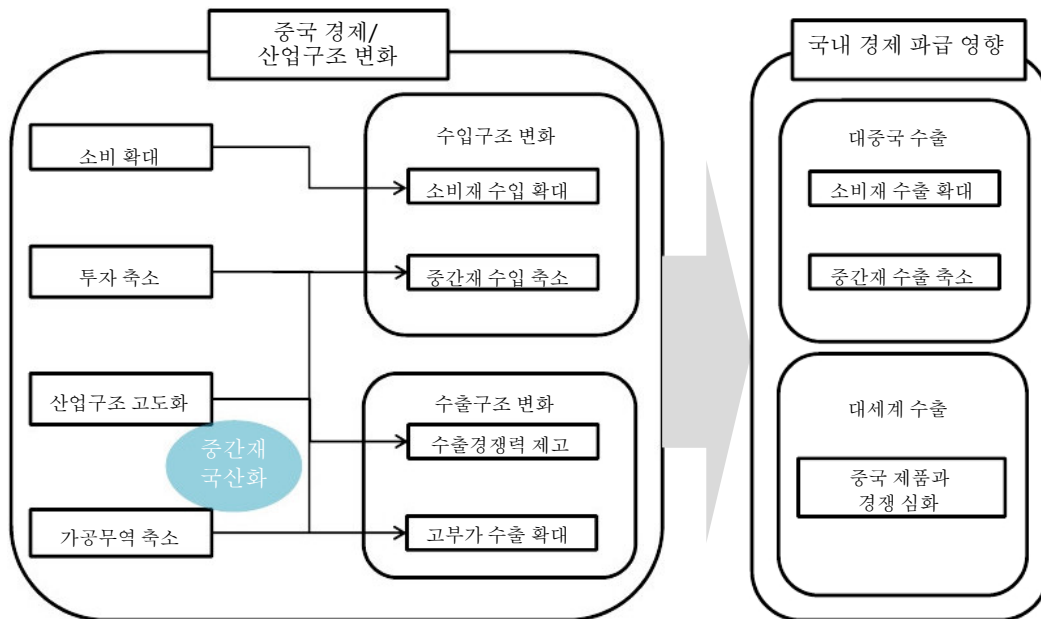
<중국 가공무역 / 총무역 비중 추이>



<중국 가공단계별 수입 / 총수입 비중>



4.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



4.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

●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증대 예상

중국 = 세계 1위 인구 보유 +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 세계의 공장 → 세계의 소비대국

2014년 중국 소비재 수입액 : 1,566억 달러(2010년에 비해 2배 증가)

중국의 주요 소비계층 : 빠링호우(80년 이후 출생자, 2.2억명), 지우링호우(90년 이후 출생자, 1.7억명)

- 절약과 저축 → 자기 만족과 삶의 질 추구
- 의류/패션, 화장품, 고화질 TV 등 비필수 소비재와 웰빙 식음료에 대한 수요 급증

BUT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은 2.5% → 3.6%(2003~2014) 낮은 증가세

→ 중국의 경제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4.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

●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예상

중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부진 + 중국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

-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 성장세는 회복되고 있으나 대중 수출 부진은 지속
- 대중 수출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교역 구조 변화 → 대중 중간재 수출 실적 둔화

- 대중 수출경쟁력 지수는 소폭 개선, 하지만 섬유 및 화학 등 소재 분야는 약화
- 중간재의 경우 중국의 수요 축소에 따라 성장세 둔화

4.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

●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디스플레이, 전기가전,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산업의 기술격차 축소 →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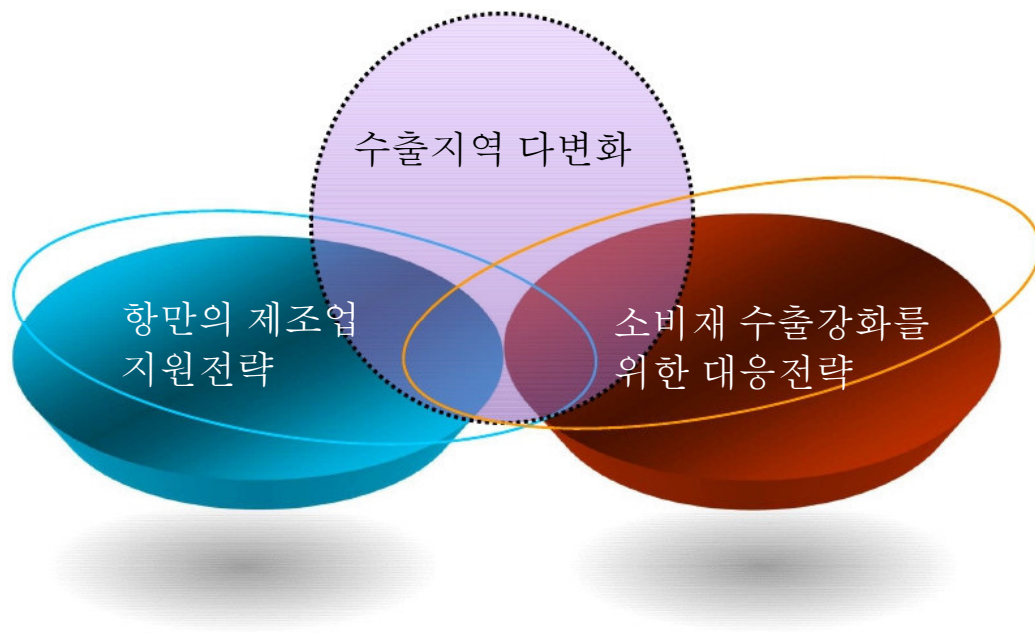
- 중국 내수 및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 또한 치열한 상황
- 최근 10년 간 철강, 조선, 정유 등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거나 역전 된 것으로 파악(전경련)



중국 제품의 경쟁력 제고 → 대세계 수출 경합도 상승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수출 경쟁 심화

- 중국의 수출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해지면서 제조업의 수출 경합도 상승
-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의 경쟁심화
- 경공업 뿐만 아니라 IT, 정밀기기, 기계, 철강 등 중국의 경쟁력 제고로 인해 우리나라 대중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5. 대응방안



5. 대응방안 - 신 항로 개척을 위한 제언

● 동남아시아 항로의 개발 주력

인천/평택항 - 동남아시아 신항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인천 : IA6노선(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과 NSB노선(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등 교역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항로 확대 주력
 - 평택 : 베트남(하이퐁, 2016.4 / 호치민, 2016.8)으로 신규 항로 개발
-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황해권 항만의 동남아시아 신규 항로 개발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이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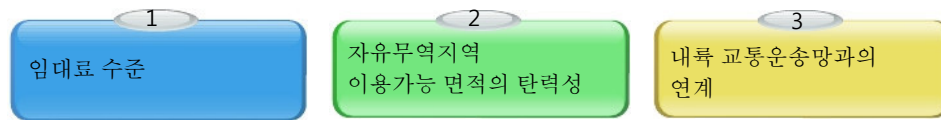
2016년 5월 한/이란 해운협정 및 항만 개발에 대한 MOU 체결

- 우리나라는 민관 합동으로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인천/평택-이란 물류 운송루트 개설을 위한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대응방안 – 제조업 지원 방안

●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과 반영

국내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 조사결과(2015)



임대료 수준의 정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하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전무
- 항만 지역은 국가간 경쟁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항만지역을 규제지역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시설투자 및 영업 초기단계를 간주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차등 부과 : 사업개시 후 3년간 25% 수준, 5년까지 50% 수준, 이후 정상 임대료 부과(네덜란드 사례)

5. 대응방안 – 제조업 지원 방안

●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과 반영(계속)

자유무역지역 이용 면적의 탄력적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배후단지에 임대면적이 지정되어 입주기업 공모
- 또한 신청 면적이 공모 당시 정해져 있음
- 부지제공 면적에 대한 하한과 상한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면적 만큼 임대하는 방식을 사용 ⇒ 기업 유치의 활성화(네덜란드 사례)

내륙 연계운송망의 조속한 개발 추진

- 항만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는 화물 교통량 증가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이 발생하고 있음
- 원활한 배후수송망 구축을 위해 도로 확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5. 대응방안 – 소비재 수출 지원을 위한 항만전략 수립

● 소비재 관련 전시 판매시설 개발

항만 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에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을 연계한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여 바이어 및 고객들이 상품을 직접 관람하고 즉시 구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항만을 통해 수출 할 수 있도록 제공



● 유망 소비재 제조기업 우선지원

유망 소비재 제조기업에 대하여 항만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임대료를 인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 배송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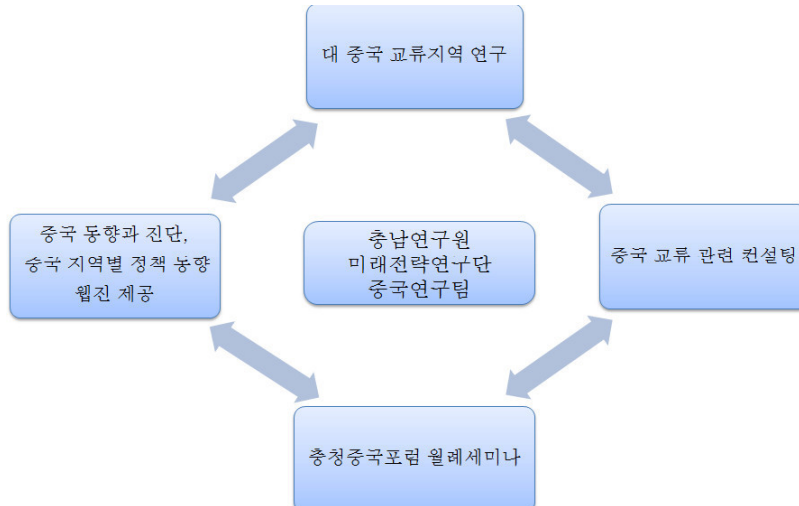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인기 소비재 상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내 보세창고 활용을 지원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기대 하며, 이로 인하여 항만 물동량 증가 기대

감사합니다 !

Ⅳ.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및 계획

회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	2015.7	여름휴가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행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	2015.12	연말휴가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 주중한국대사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	2016.7	여름휴가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	2016.12	연말휴가	
17회	2017.1.18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엔타이(烟台)·펑라이(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8회	2017.2.22	충남도 및 시군별 대(對)중국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당진-서산-태안, 보령-서천, 금산 등)	시군 담당자(시장/군수 초청)

※ 상기 일정은 발제자 섭외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MEMO

MEMO

MEMO

MEMO